

들어가기 구약의 맥추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로서 유월절 이후 7주가 지난 다음 날입니다. 그 기간은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하며, 맥추감사 주일은 부활을 기점으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고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맥추감사 주일이며 지상의 신약교회 탄생의 생일이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발현과 교회의 출발이 알려지는 생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둘러보기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로 증인되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왜 성령님이 교회 탄생과 함께 공동체에 임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첫 번째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영을 함께 하시려는 부름과 초대 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은 생명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었습니다.(창2:7)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와 타락에 빠진 인생들이 육신이 되어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창6:1-3)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 비상한 경영과 수단을 강구하십니다.(욥2:27-30) 말세에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숨 쉬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죄에 빠져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두 번째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고 파송하십니다.(요20:20-22)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셔서, 끊어졌던 육체가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순절은 죽었던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Q.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고 완성하시는 과정을 말씀을 확인하며 살펴봅시다.(창2:7, 창6:1-3, 욥2:27-30, 요20:20-22) 예수님은 두 번째 숨을 내쉬며 무엇을 받기를 말씀하십니까?(요20:22)

교회 공동체의 탄생에서 나타난 첫 번째 sign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행2:1-2) 엘리야가 가나안 종교의 열광주의에 빠져 서서히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면서 이세벨의 불호령 앞에 낙심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이시며, 호렙산 굴 앞에 세우고 보이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불, 바람, 지진이 아닌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원문으로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는 뜻으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의 경우와 같습니다. 즉 이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이끄는 동력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지배되어 있고 통치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외적 사건은 불입니다.(행2:3)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 불기둥이 있

었습니다.(출14:24) 또한 광야에서 떠도는 모세에게 나타난 것도 불꽃이었습니다.(출3:2)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교회에 절대로 사조직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의 세 번째 현상으로 ‘난 곳 방언’이 나타납니다.(행2:4-11) 제자들의 설교가 다른 나라 말로 듣게 된 것입니다. 언어의 혼잡은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인한 흠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역사를 멈추기 위해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 때 이후 혼잡했던 언어가 교회가 탄생할 때 난 곳 방언의 역사로 통일됩니다. 언어의 통일을 통한 하나님의 지상교회의 mission은 첫째, 복음은 모든 민족의 것이므로, 그 사명을 새롭게 태어난 교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 멸망당할 인생들에 대해 증인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둘째는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소통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소통해야 합니다.

Q, 교회 공동체의 탄생에서 나타난 외적 현상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리(행2:1-2), 불(행2:3), 난 곳 방언(행2:4-11)

나오기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시는가.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교회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엡2:20-22) 성령님이 오셔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Q, 왜 성령님은 사명을 직접 감당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까?(엡2:20-22)

▶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각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 제주와 동해선교의 간증을 서로 나누어봅시다. 또한 남아있는 이번 여름선교는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 결단하며 서로 발표합니다.

기도 : 🎵 마지막 날에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성령충만함을 위해

담임목사님의 강단사역과 말씀의 사역을 위해

여름선교의 모든 일정과 열매와 안전, 영육간에 강건함 위해

주일학교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